

투데이 칼럼

중국 축구의 불가사의

한국 축구대표팀은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최종 10차전에서 쿠웨이트를 4-0으로 완파했다. 한국은 쿠웨이트전 승리로 승점 22(6승 4무)를 쌓아 조 1위로 3차 예선을 마쳤다. 한국은 이날 대승으로 월드컵 예선을 화려한 파날레로 마무리했다. 이보다 앞서 6일 9차전 원정 경기에서 한국은 이라크를 2:0으로 이겨 이미 본선 직행 티켓을 획득했다. 이로써 한국 축구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과 역대 12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게 된다.

필자는 축구광이다. 어려서부터 축구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축구를 좋아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축구만큼은 본다. 축구 경기 일정을 꼼꼼히 메모해놓고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 빠짐없이 경기를 시청한다. 단순 경기를 시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기 규칙, 전술 전략, 승패 원인 등을 나름대로 분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많은 축구팬들은 중국과 인도의 축구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현대판 불가사의라고 말한다. 두 나라 인구는 각각 14억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어떻게 14억 중에 축구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일까. 정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뿐 아니라 유



신영규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장

럽이나 축구 전문가들도 공공한 건 마찬가지다. 1억 명 가운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 같은 재능 있는 선수 한 명 선발하는 건 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닌가. 그런 선수가 14명이 모이면 아마도 세계 최강이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중국 축구에 대해서만 거론하고자 한다. 중국은 한때 '축구 강국'을 꿈꿨다. 세계 최대 인구, 급성장하는 경제, 축구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집권 당시 '월드컵 본선 진출, 월드컵 개최, 월드컵 우승'이라는 '3대 소망'을 밝혔다. 이로 인해 중국은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며 축구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내세웠다. 수십억 위안을 쏟아부으며 해외 유명감독과 유명 선수들을 영입했고, 유소년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하지만 결과는 장난대. 크로아티아 출신 브란코 아반코비치 감독이 이끄는 중국은 지난 5일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 9차전 인도네시아 원정경기에서 0-1로 충격패를 당했다. 중국은 이날 유효 슈팅 17개에 그치는 졸전을 펼친 끝에 고개를 숙였다. 중국이 인도네시아에 패한 것은 38년 만이다. FIFA 랭킹은 중국이 94위, 인도네시아는 123위다. 승점 6(2승 7패)에 머무른 중국은 조 최하위로 처져 최종전 비례인전 결과와 무관하게 탈락이 확정됐다. 북중미 월드컵 출전국과 아시아 출전권 확대 모두 FIFA가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번에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중국이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것은 2002 한일 월드컵 대회 한 번뿐이다. '스포츠 강국' 중국

이 유독 축구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만가지 해석이 나와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축구의 실패는 정치 시스템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축구협회(CFA) 회장은 송차이 당서기. 그는 국가체육총국(GAS)에 모든 사안을 보고하고 승인 아래 시행한다. 대표팀 선수 선발, 프로리그 운영 등이 전부 당 교위총 입맛대로 이뤄진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축구는 교위총이 즐기는 문화로 바뀌어 갔다. 현장 지도자는 무엇이든 성과를 내 뒷선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선수들 움직임을 엄격히 통제한다. '축구 지능'이 길러지지 않는 이유다. 중국에서 뛰는 한 유럽 선수는 "중국 선수들이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중국 축구가 월드컵 진출에 실패하자 많은 중국 국민들은 실망, 탄식, 대성통곡했다. 그러나 중국이 언제 축구를 잘하는 나라였냐고 반문하고 싶다. 월드컵 진출국 수를 늘렸어도 탈락한 건 실력 부족이 아닌가. 중국이 축구 강국으로 부상하려면 먼저 국제무대에서 거친 플레이어의 소림축구(강패죽구)를 당장 멈춰야 한다. 축구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관중 난입, 레이저 공격, 국가 제창 때 이유 등 다양한 비매너 행위도 시정해야 한다.

사설

유상증자의 문제

방위산업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3년 전과 비교해 14배가 넘는다. 요즘 가장 분위기 좋은 상장사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고비가 있었다. 역대 최대 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자 주주들이 반발했고 금융당국도 거듭 제동을 걸었다. 결국 세 번 시도한 끝에 곧 2조 3천억원 유상증자가 확정된다.

이런 '대장주' 조차 큰 논란이 될 정도로, 국내에서 유상증자는 '공공의 적' 같은 취급을 받는다. 사업을 키우기 위해 주주에게서 투자금을 더 받는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냉대를 받는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문제는 지뢰밭이 된다. 세포치료제 개발 업체인 차바이오텍의 개인주주 모임은 2년째 1인 시위 중이다. 주가 하락이 발단이었지만, 유상증자 말 바꾸기가 기쁨을 부었다.

R&D를 위한 유상증자는 안

한다더니, 지난해 말 회사는 R&D와 자회사 투자 등을 위한 2천억 원대 유상증자를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목적이 불분명하며 제동을 걸었고, 증권신고서를 6번 고치면서도 유증은 철회하지 않았다.

유증 발표 이후 주가는 거의 30% 빠졌다. 유상증자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주주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행위다. 주주에게 '더' 투자를 받았으니 사업이 잘되면 주주에게 '더' 돌려줘야 한다.

국내 상장사 2천7백여 곳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4번 이상 유상증자를 한 기업은 22곳이다. 유상증자를 9번이나 한 기업도 3곳이다.

상위권엔 대기업도 있는데, CJ CGV와 제주항공이 4번씩으로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했다.

하지만,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은 전무했다. 이익이 안 나 여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성인 질환의 주원인 비판

아픈 데는 순서가 없다. 특히 당뇨와 고혈압이 그렇다. 주로 중년 이상 나이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었는데, 요즘은 2080 젊은 환자들이 급증해나.

방치하면 더 오래, 더 심각하게 고생할 수 있다. 어느 젊은이는 스무 살 때 갑자기 소변량이 늘어 병원을 찾았다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당시 몸무게는 130킬로그램으로 운동을 시작했지만,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일하다 쓰러지는 일도 있었다. 헬스 트레이너였던 이 남성은 일을 그만두면서 몸무게가 반년 만에 20kg 늘었다.

30대 후반인데도 고혈압이 생겼다. 당뇨병 치료를 받은 2~30대 젊은 환자는 15만여 명이다. 같은 연령대 고혈압 환자는 24만여 명이다. 10년 전보다 각각 73%와 53% 늘었다.

40대 이상보다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젊은 층의 비만이 가장 큰

원인이다. 2~30대 10명 중 서너 명(36%)이 비만일 정도로, 비만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새로 생기는 당뇨병 환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유일하게 증가하는 연령대가 40세 미만 20~30대 당뇨병 환자인데 비만을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높은 혈당과 혈압이 장기간 방치되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린다.

심근경색과 뇌출혈, 심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젊은 층은 사회생활에 쫓기다 보니 건강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당뇨병 치료율은 76%, 젊은 환자는 그 절반(35%)에도 못 미친다.

고혈압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혈압 수치라도 젊은 층이 더 위험하다. 체중을 줄이고 혈당과 혈압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일찍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이민세관단속국 단속 규탄하는 시위대



10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성조기와 멕시코 국기를 든 시위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을 규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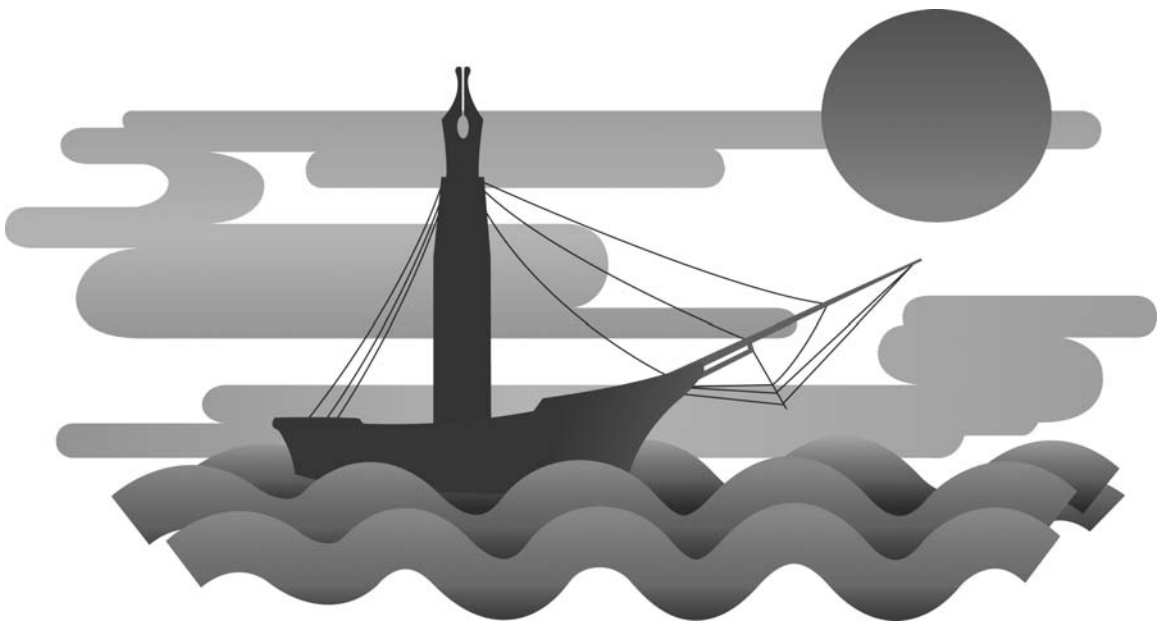
총기 난사 희생자 애도 촛불 밝히는 남성



10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그라츠의 드라이어슈츠엔가세 중등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한 후 사람들이 학교 정문에 마련된 추모소에 촛불을 밝히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최소 11명이 숨졌으며,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격범은 이 학교에 재학했던 21세 남성으로 전해졌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